

각인 사상이 지식에  
재현 통해서 연구 있다.

의사결정권! 반대: 플라톤, 흄  
이상적 국가 = 이상적 인간 : 조화 → 정의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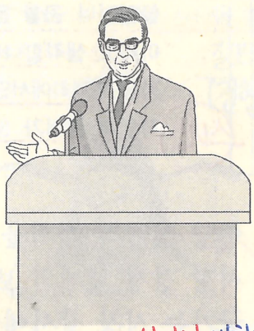
50

|    |    |       |                     |
|----|----|-------|---------------------|
| 성명 | 정진 | 수험 번호 | / / / / / - / / / / |
|----|----|-------|---------------------|

종양 : 8문제  
서양 : 10문제  
이데 : 2문제

(번역의 경계) → 선택 중안 풀이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번역) 인간은 그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든, 실존 이후에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구상하는(신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매 순간 자신을 발명하도록 선고 받았습니디. 자기 자신에 도달한 인간은 타인을 자기의 실존 조건으로서 발견 하게 됩니다.



- ① 규범의 압박에서 벗어나 타고난 본성인 이성의 명령을 따른다.
- ② 사회적 삶을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설정한 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 ③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④ 감정과 욕망을 배제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보편적인 규범을 지킨다.
- ⑤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다.

- 1) 삶이 본질에 앞선다.  
2) 인간은 자신세계를 스스로 만들어감 (신 X)  
3) 연대, 사회적 책임 ↑

point 1. 공통점만 알게 아니라 각 사상가의 특징도 정확히! ex) 야스퍼스, 키에르케고르  
2. 이성, 보편, 선지 지키기.  
3. 원신/원신 구분 잘하기.

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한정형 X) 종합적 성격 → 장문  
경험에 기반 ← only 이성적 사유 (X) ≠ 이성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자연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은상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은상들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을: 학문의 기초로서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은 우리를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정신을 감각으로부터 떼어 내는 데 가장 쉬운 길을 열어 준다.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참이라고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해 준다.)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는 데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 과학적 지식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인간의 생활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명백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 연역적 추론은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에게 자연에 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주(僭主)는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아침과 굴종을 하며 산다는 점에서 진짜 노예이며, 자신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실로 가난한 자다. 그의 영혼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병들어 있다. 철인왕은 그와 반대되는 유형의 사람이다. 그래서 철인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최선의 이상 국가로 볼 수 있다.

- ① 철인왕은 이성이 뛰어나지만 참주는 욕망이 우세하다.
- ② 이상 국가에서 세 계층은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다.
- ③ 철인왕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다.
- ④ 이상 국가에서는 전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강조된다.
- ⑤ 철인왕의 지혜는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덕이다.

4.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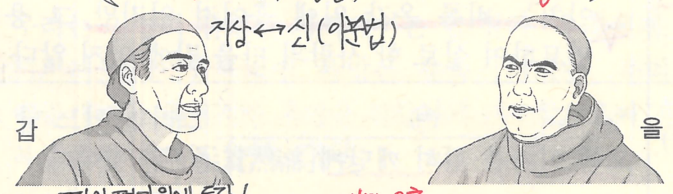
성인(聖人)은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자유로이 논리게 한다. 그는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 규범을 몸을 얽매는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의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가혹을 장사의 숨씨로 여긴다.

- ㉠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소요(逍遙)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시비선악을 엄격히 구별하고 청명(正名)을 실천해야 한다.  
㉢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추구해야 한다.  
㉣ 도덕적 본성의 실현을 위해 신독(慎獨)을 실천해야 한다.

5. 그림은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신의 존재는 진리의 존재로부터 증명됩니다. 악은 의지의 산물이지만 덕은 신의 은총의 산물이며, 신의 은총이 있어야 완전한 행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두 가지 사람이 있음으로써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있게 됩니다.

신의 존재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증명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연법을 따를 수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으며, 자연법은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근거합니다. 또한 완전한 행복에 이르려면 종교적 덕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 ① 갑: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신의 나라에 속한다.
- ② 갑: 신은 만물을 창조하였으므로 악도 신의 창조물이다.
- ③ 을: 자연법은 인간 이성의 명령이 아니라 신의 명령이다.
- ④ 을: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해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 ⑤ 갑: 완전한 행복은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필요로 한다.

방법적 회의 → 사유의 제1차리 → 도덕성

- ① 욕망 제어, 조절 / 충족      ④ 사회적 생산성 ↑
- ② 사회적 유지
- 2 ③ 재화, 자본 분배 기준  
(태반요인 고려 < 후천적 노력)

#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6. 맹자 < 순자에 집중 >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위 (44%)

갑: 군자의 본성[性]은 비록 그의 뜻이 크게 행해진다 하더라도 더 늘어나지 않고, 비록 궁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 군자의 본성에 속하는 인의예지는 그의 마음[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을: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으면 본성을 높이게 되며, 스승과 법도가 있으면 노력[積]을 높이게 된다. 김매고 밭 가는 일을 쌓아 농부가 되고, 깎고 다듬는 일을 쌓아 장인이 되듯이(예[禮]와 의[義]를 쌓으면 군자가 된다.)

- ① 갑은 옳고 그림을 가려내는 마음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을은 외적인 예와 의를 쌓으면 모든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타고난 도덕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를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7.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모든 법(法)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지속되지도 단절되지도 않으며, 같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양극단으로 치우침: "중"

○ 만약 모든 상(相)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곧 여래를 보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불교

<보기>

㉠ 분별적 인식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

㉡ 멸제(滅諦)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 모든 존재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空]을 깨달아야 한다.

㉣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주자 vs 양명 잘 구분하자

시험장: 차등(양명 → 주자)

8.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위 (71%)

○ 양지(良知)는 사람에게 본래 있는 것이지만, 궁리(窮理)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통달한 데 만족하여 아직 알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마음은 본래 한 몸을 주재하는 것이지만, 그 체(體)는 허령(虛靈)하여 천하의 이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이치는 비록 온갖 일에 흩어져 있지만 그 용(用)이 미묘하여 실로 한 사람의 마음 밖에 있지 않다. 이월부수

㉠ \_\_\_\_\_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이치를 훤히 깨닫게[豁然貫通] 될 것이다.

- ① 본성[性]이 선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라.
- ② 참된 앎이 발휘될[致良知] 수 있도록 이기적 욕망을 제거하라.
- ③ 헤아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능력[良知]을 갖추도록 궁리를 하라.
- ④ 앎과 행위가 본래 하나임을 자각하고 일상에서 항상 선행을 하라.
- ⑤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라.

9.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생님께

선생님은 지난 편지에서 국가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과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실업이나 공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경제 활동의 목적은 오직 자유 경쟁 체제하에서만 실현 가능하며, 이런 경쟁 체제에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형성됩니다. ... (후략) ...

- ① 중앙 집권적 계획을 통해 완전 고용에 도달해야 한다.
- ② 시장 경쟁 체제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필요하다.
- ③ 국가는 시장 질서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④ 경제적 자유의 실현보다 경제적 평등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
- ⑤ 시장의 자생적 질서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다.

(이황, 이이, 정약옹, 정제두, 박은식)

10. (가)를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
|-----|--|---|------|------|
| (가) | 사람의 성(性)이 선을 좋아함으로 인해 측은(惻隱)과 사양(辭讓)의 마음이 있고, 악을 싫어함으로 인해 수오(羞惡)와 시비(是非)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사심(四心)이 있음으로 인해 사덕(四德)을 이룰 수 있다. 정약옹 (=사단) |   |      |      |
| (나) | (A)와   | 수 | (B)의 | (C)의 |
|     |  |   | 친    | 친    |
|     |  |   |      |      |

[가로 열쇠] → 현실 뛰어넘었어..

(A): 주희의 사상을 비판하고 심학(心學)을 체계화한 명대(明代) 사상가의 이름. 호는 양명(陽明)

(C): 고려 시대에 천태종을 개창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자(字). 시호는 대각국사(大覺國師)

[세로 열쇠]

(B): ..... 개념

- ①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정신과 정의로운 마음이다.
- ② 사양과 시비의 마음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선천적인 덕이다.
- ③ 덕으로 자라날 수 있는 짝이나 뿌리에 해당하는 선한 마음이다.
- ④ 예의를 배우고 익혀 이기적인 본성을 교화할 때 형성되는 덕이다.
- ⑤ 측은과 수오의 마음을 일상에서 확충함으로써 얻게 되는 덕이다.

이항이, 정약용 정제두, 박은식..

11. 다음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쉽게 출제될 것 같아요

분리

정(情)에 사단과 칠정의 분별이 있는 것은 성(性)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분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어찌 정만 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항

정은 하나이지만 사단이다 칠정이다 말하는 것은 오직 이(理)만을 말할 때와 기(氣)를 겸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습니다. 이이 칠정론 (전행적)



갑



을

<보기>

- ㄱ.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인가? 기발음
- ㄴ. 사단은 이가 발한 정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정인가? 사단=정
- ㄷ. 이는 순전한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인가? 마음
- ㄹ.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고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 이항 | 이이 |     |
|---|----|----|-----|
| 갑 | X  | O  | → ㉠ |
| 을 | X  | X  | → ㉡ |
| 을 | X  | X  | → ㉢ |
| 을 | X  | O  | → ㉣ |
| 을 |    |    |     |

★ 깃잡주의 (마르크스의 이상사회)

- ① 계급 소멸
- ② 국가 폐지

1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취급상대 → 자연상태

자연상태

정의, 부정의 구분

갑: 모든 사람을 떼게 만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불의하지 않다. 권력과 배신이 난무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공통의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이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힘을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계약

을: 정치적 권력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려고 사용하는 Marx 조직된 폭력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와의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서 결합하여 혁명에 의해 지배 계급이 되고,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와 함께 사회의 계급 대립 및 계급 자체의 존재 조건을 폐지한다. 깃잡주의

- ① 갑: 만인의 계약을 통해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③ 을: 이상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게 된다.
- ④ 을: 모든 계급의 연대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 ⑤ 을: 국가는 폭력 혁명에 의해 필연적으로 소멸될 권력 기구이다.

깃잡주의: 계급, 국가 소멸

[13~14]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제사문 독해의 중요성!

이항이 행복 양립 가능

갑: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별하는 것이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이 바라는 것은 오직 의무가 문제일 때에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을: 도덕적 감정의 한 가지 원천이 유용성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시인(是認)과 호의(好意)를 얻는다는 것이 도출된다. 여기에 도덕성의 기원을 상당한 정도로 설명해 주는 원리가 있다.

13.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도덕의 기본적인 목적이 행복의 실현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 옳
- ㉡ 도덕에 있어서 이성은 감정의 보조자일 뿐임을 모르고 있다. 옳
- ㉢ 도덕적 감정은 도덕의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 ㉣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진다고 말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옳
- ㉤ 도덕적 행위와 행복의 추구가 양립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옳

14. 갑, 을이 <문제 상황> 속 K 군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상황>

고등학생인 K 군은 어느 날 TV를 보다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홀어머니를 돌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소년 가정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려고 모아 둔 용돈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른 K 군은 그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 ① 갑: 의무 의식을 기부 행위의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 ② 갑: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경향성에 따라 기부해야 합니다.
- ③ 을: 기부 행위는 유용성과 무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④ 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기부해야 합니다.
- ⑤ 갑, 을: 이성의 명령을 직접적인 동기로 삼아 기부해야 합니다.

1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부정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는 자연과 일치하지 않는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을: 우리는 자연적 본성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육체적인 욕망은 충족시키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인 욕망은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 소위 쾌락.

- ① 개인의 욕망 충족이 사회적 쾌락 증진으로 이어지게 노력해야 한다.
- ②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옳
- ③ 신과 자연과 인간의 본성인 이성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옳
- ④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옳
- ⑤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순응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옳

자서적, 풍성적 [11] 전서 명성  
 실천적, 절제, 용기 등 의 인격, 풍성을 갖춘 인간의 필수요소

4 비교 by 반복 실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16.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유 (46%)

- 덕은 인간 본성의 목적이 되는 행복을 성취하게 해 준다. 덕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중용을 목표로 삼는다. 덕을 소유한 사람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고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것에 고통을 느낀다.
- 모든 공동체는 선을 추구하는데,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최고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다른 아닌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이다. ANS (아리스토텔레스)

국가관 (=공동체주의)

- ① 인간 본성의 목적이 정치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② 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임을 강조한다.
- ③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게 해 주는 품성적 덕임을 강조한다.
- ④ 행위자의 성품보다 추상적 도덕 원리를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덕윤리
- ⑤ 모든 행위와 감정에서 항상 중용 상태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기출 약속

17.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나의 스승은 "관(觀)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경(經)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교관에 지극히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니, 화엄을 전수하더라도 관문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을: 접수문에 속하는 열등한 수행이더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는 필요하다. 망상이 들끓으면 우선 정(定)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 본래의 고요함으로 되돌리고, 혜(慧)로 명한 상태를 다스리면 결국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의견, 의천, 지눌, 대변 나온다

- ① 갑은 내적인 교(敎)와 외적인 선(禪)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정혜를 함께 닦는 것을 수심(修心)의 요체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선과 달리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아야 한다고 본다) 원단수
- ④ 을은 갑과 달리 참선을 통해 악한 본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은 화두(話頭)를 들고 수행하는 간화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눌

(윤산도 제사문 읽기의 시대가 도래!)

18.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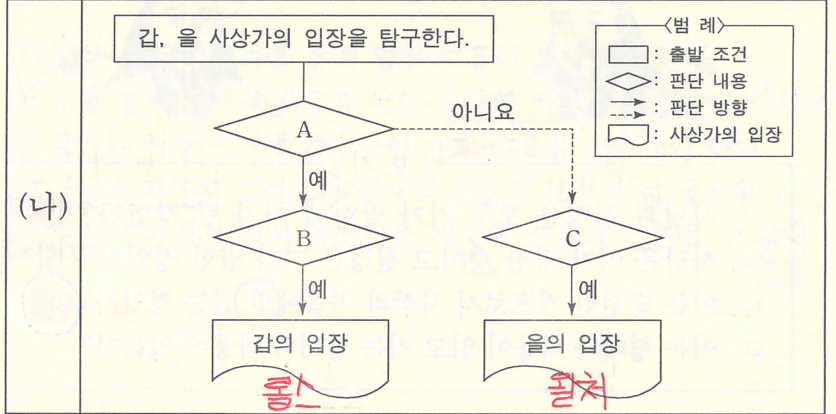
특정한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자는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법률에 복종하며 살면서 그 법률이 제공하는 특권과 보호를 향유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루크(동의를)

- ① 국가의 구성원은 모두 정치적 의무를 지니는가? ○
- ②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하는가? ○
- ③ 정치적 의무의 성립 근거는 개인의 동의에 있는가? ○
- ④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는 모두 그 국가의 구성원인가?) 제사문 때문
- ⑤ 국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동의인가? ○ 묵시적동의

1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만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가장 불운한 계층의 처지가 최초 상태에 비해 개선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의에 부합한다. 찬(허가)

을: 모든 것이 매매되고 모두가 같은 양의 돈을 갖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이러한 단순 평등 상태는 자유 교환으로 결국 불평등해지므로,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들을 갖는 복합 평등 상태가 정의에 부합한다. 복합평등



- <보기>
- ㉠ A: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최초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대상이 다름
  - ㉡ B: 정의의 제2원칙은 제1원칙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칙인가? 가상적 최초 상황
  - ㉢ C: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는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인가? 가상적 최초 상황
  - ㉣ C: 정의의 세분화된 영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해야 하는가? 가상적 최초 상황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0.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선천에서는 상극의 이치가 세상을 지배하여 원(冤)과 한(恨)이 짙어져서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므로, 내가 천지도수를 뜯어 고쳐서 상생의 도로써 선경(仙境)을 열고 조화 정부를 세우겠다.

을: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과 성인의 심인(心印)인 법신불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영육쌍전(靈肉雙全)을 통해 개인·가정·사회·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 <보기>
- ㉠ 갑은 무속과 도교를 배척하고 해원(解冤)을 강조한다.
  - ㉡ 을은 시대 변화에 맞춰 정신보다 물질의 개벽(開闢)을 강조한다.
  - ㉢ 을은 생활 속에서의 보은·평등·불공의 실천을 강조한다.
  - ㉣ 갑, 을은 신분과 남녀의 차별을 떠난 평등사상을 강조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